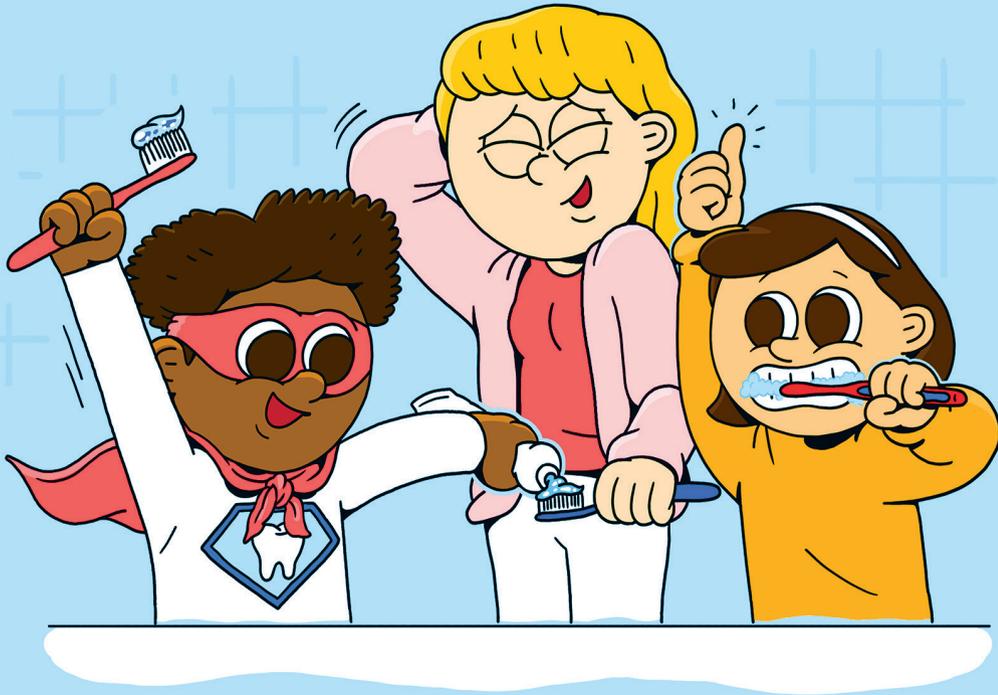


치솔질 동무를 만들어 보!

글_ 류재인 이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야. 응? 무시무시하다고?

그림_ 소경섭 삼촌



안녕. 오랜만이지? 치과 이모야. 오늘은 내 얘기를 좀 해볼까 해. 나는 6살짜리 유치원에 다니는 꼬맹이랑 같이 살아. 동무들에게는 동생이겠구나. 너희도 기억나겠지만, 그맘때 아이들은 뭐든지 해달라고 조르기 마련이잖아. 왜냐하면 엄마들은 아기가 밥만 잘 먹어도 고맙고, 옷을 스스로 입기만 해도 고맙고, 인사를 잘하면 더 고맙고 그렇거든. 너희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시절, 금방 지나가 버리잖나. 아무튼 그저 엄마·아빠 말을 잘 따라주지만 해도 정말 고마

운데, 칫솔질은 오죽하겠니. 우리 집 꼬맹이도 그래. 근데 얼마 전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니까. 무슨 일이나고?

지난번에 얘기했지? 하루 두 번 이상 칫솔질하는 게, 매우 중요하다고, 그중에 한번은 반드시 잠자기 전에 해야 하거든. 눈치 빠른 동무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모는 직장에 다니는 일명 '워킹 맘'이야. 그런 이유로 하루 칫솔질 중에서 꼬맹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건 잠자기 전에 하는 것뿐이야. 그래서 아이가 칫솔을 잡을 수 있는 때부터, 잠자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같이 칫솔질을 하자고 했지. 그런데 너희도 알겠지만, 난 약간 게으른 어른이거든. 이미 눈치 챘지? 흠. 아무튼. 너무 피곤한 날이면 (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...) 꼬맹이한테 가끔 칫솔질 건 너뛰고 그냥 자자고 했어. 처음엔 좋아하던 꼬맹이가 그렇게 며칠 지나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. 벌레 생기는데 괜찮겠냐고. 내가 그 아이한테 이 안 닦으면 벌레 생겨서 치아를 다 갠아먹는다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자주 했거든. 근데 그 얘기를 꼬맹이한테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 지더라고. '아, 내가 이러면 안 되지,'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며 함께 칫솔질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? '아, 잠자기 전에 같이 닦을 수 있는 칫솔질 동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,' 싶더라고. 내가 안 하면 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 주는 칫솔질 동무.

그리고 보니 항상 나는 꼬맹이한테 항상 '이거 해라, 저거 해라'라고 가르치기만 했던 거 같아. 그런데 이때는 반대로 유치원생인 아이가 어른인 나의 칫솔질 동무가 되어 게으른 나를 가르친 거 아니겠니? 갑자기 <내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>라는 책이 생각나는 거 있지. 내가 힘들어지면 아이가 일깨워 주고, 아이가 힘들어지면 내가 다시 일깨워 주고. 이런 칫솔질 동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.

그러니 우리, 학교와 집에서 칫솔질 동무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? 사람들이 하루 중에 제일 칫솔질을 안 하는 때가 점심 먹고 나서라고 하니,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옆 짝꿍한테 점심 먹고 같이 칫솔질을 하러 가자고 하는 건 어떨까. 저녁에 집에 와서도 엄마·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, 너희가 한번 즐라보는 건 어떨까. 이제 잠자기 전에 칫솔질 같이하자고. 그러면 아마 식구들이 동무들을 보는 눈에서 하트가 뽕뽕 나올걸? 완전히는 아니지만 반은 장담한다. ㅎ

동무들이 좋아하는 칫솔과 치약도 직접 골라보고 칫솔질 동무도 만들어서 같이 건강해진다면,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몫 톡톡히 하는 거라고. 자, 어서 생각해 봐. 누구랑 칫솔질 동무를 할지 말이야. ㉔